

LG화학, 스톡옵션 한도 15%로 확대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 ... 이사 보수한도 25억원 동결

LG화학은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5%로 10%p 확대하고 주주총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또 강유식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신재철 전 한국IBM 사장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밖에 이사보수 한도를 2004년과 같은 25억원으로 결정하고 2004년 재무제표도 승인했다.

LG화학 노기호 사장은 “2005년에는 고부가 사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과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의 실행역량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일구어내는 한편 제조부문, 영업, 마케팅 등 전사적인 혁신활동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3/03/18>